



吳元圭대표이사

르뵐 ●

##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

吳元圭 대표이사를 찾아서

### 한국掘指의 昌原工業基地 의료보험조합

“한국 제 1의 공업단지가 어디냐?” 고 물으면 누구나 서슴없이 昌原工業團地를 손꼽을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공업基地인 昌原 단지는 문자 그대로

어마 어마하다. 기자가 1년전 방문했을때만 해도 짜임새가 조금은 엉성했는데 이번에 와서보니 짝짝인 공장도시계획으로 질서정연한 모습이 정말로 믿음직하다.



북대표이사(左)와 대담하는鄭  
실장(中) 李과장(右)

내년도에는 경남도청도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소문도 있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리를 거니는 시민들의 발걸음, 또한 활기차다.

기자가 경남지부 河成美 국장, 金연수 사업과장과 함께 昌原工業基地 医療보험조합 사무실을 찾은 것은 불별더위가 내려쬐는 지난 7월 9일 오전.

경남지부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다면 서 총무과장 宋柱燦 씨, 업무과장 李裕和 씨, 그리고 給與係長 表在侏 씨 등이 반가이 맞아준다. 表계장은 기생총사업 담당(?) 이라서 그런지 더욱 반가이(✓) 맞아준다.

마침 吳元圭 대표이사께서는 급한 용무로 잠시 출타중이시라면서 기자 일행의 방문을 기다리게 하시고

나가셨다고 전언한다.

基地 전체의 분위기가 사투 大陸의 이라서 그런지 시원스런 사무실 분위기도 人和團結의 標本 같은 생각이 든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宋과장, 李과장, 表계장의 트리오는 항상 어울려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리드한다고 자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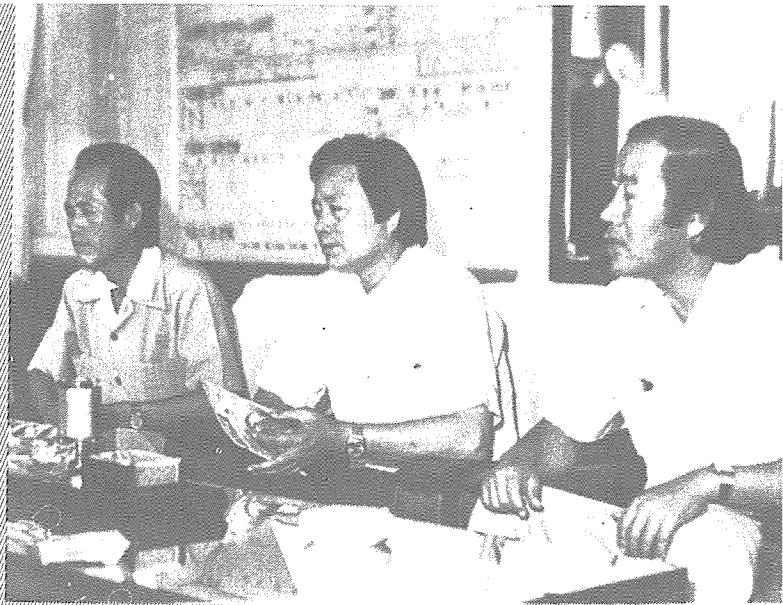
× ×

昌原공업기지 의료보험조합은 事業場數 90개 업체를 관장하는 대단위 조합이다.

피보험자 총수는 2만 2천 6백 42명, 피부양자수는 4만 3천 6백 54명으로 부양율이 1대 1.9로서 지속적인 증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곳의 한가지 특색은 피보험자수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대담하는 宋과장, 表계장, 李과장  
(左로부터)



이다. 남자가 1만9천7백여명인데 반해 여자는 2,900여명 뿐이니까.

보험료의 수입 처 지급비율은 73.6%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율이 81년 처 77년을 비교할때 332.9 처 100으로 굉장히 높아져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꼭 필요한 진료이외의 受診行爲를 自制하자고 홍보하고 있었다.

이곳 組合의 특색은 「실무조정 위원회」를 구성, 년2회의 정기집회와 수시소집으로 각종 사업관계 협의는 물론, 근로자에 대한 요망 사항, 요망기관에 대한 건의사항등을 伸示하여 실질적으로 대두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宋총무과장, 李업무과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다른 조합에 비해 특색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섭니다. 즉 「본인부담보상금」제도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달에 지급할 의료비가 20만원을 초과지불하게 될 때 초과액은 100만원이전 200만원이전 조합에서 대신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 입원비가 100만원이면 본인은 20만원만내고 조합에서 80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이 제도때문에 사기 양양은 물론 생산성제고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 급여비로 장제비 제도가 있는데 피보험자에게는 20만원, 배우자와 직계존속 15만원, 직계비속 8만원씩을 지급하여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表在계장은 기생충제창답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조합은 사업비 940여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생충사업비입니다. 이만큼 홍보 및 기생충사업에 열심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뛰고 있지만 애로는 참 많아요, 90개 사업장을 관찰하다보니 기동력은 없고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道에 가시면 자동차 1대만 지원해 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하……」

그 넓은 지역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동력이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 ×

브리핑을 듣고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도중 드디어 吳元圭 대표이사가 돌아왔다.

기자에게 미안하다면서 한 직장의 리더답게 그의 소신을 이야기 한다.

안경넘어로 보이는 예리한 눈매에서 자상함과 날카로운 예지를 느끼게 한다.

그의 리더·쉽은 이미 定評이 나 있어서 어디를 막론하고 영향력있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吳대표이사는 그의 경영철학이 어떻게 이야기 해 준다.

「우리 조합은 지난 1977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지요.

한가지 특색은 수혜자나 우리 조합이나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모든것이 안정되고 정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한 팀웍을 이루워 일을 한다는 증거지요.

또한가지 이유는 근로자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통 4, 5개월이 있어야 가입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만큼 직장에 틀어잡힌 다음에 가입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다 낫은 의료보험조합으로 정착시키느냐를 항상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맺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조합의 한가지 특색은 앞서서도 말씀했듯이 각 기업체 중간계층의 실무책임자로 실무조중협의회를 만들어 啓導役을 담당토록 하며 상하의 이해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의 진료가 많은 기업체를 채택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스스로 진료를 자제하는 방향도 채택, 조합의 건실화도 기하고 있지요.

모이기는 어렵지만 집단교육을 시켜 P.R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P.R은 한꺼번에 되는게 아니라 연 관 파급효과도 큼으로 이런면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요」

비전이 있는 吳元圭대표이사의 말씀에 기자 일행은 역시 巨物다운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구나를 느끼며 무더운 여름이지만 선선한 마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다.